

방송사 법정부담금 해외 주요국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결과 보고

-
- 출장기간 : 2019. 12. 08.(일) ~ 12. 15.(일), 6박 8일
 - 방문국가 : 캐나다
-

2019. 12.

I. 출장개요

□ 목적 : 방송사 법정부담금 관련 캐나다의 제도현황, 방송통신 기술 동향 파악 및 정부(유관기관) 간 정책협력 강화

□ 기간 : 2019. 12. 08.(일) ~ 12. 15.(일), 6박 8일

□ 대상국가(도시) 및 방문기관

- 캐나다(오타와) : 라디오TV 통신위원회(CRTC), 캐나다 방송사협회(CAB), 캐나다 공영방송사(CBC)
- 캐나다(토론토) : 캐나다 미디어펀드(CMF), 캐나다 민영방송(CTV), 독립프로덕션펀드(Bell Fund)

□ 출장자 인적사항 : 권미경 대리, 김지은 대리

□ 출장일정

일 자	방문기관	주요사항
12. 8(일)	-	○ 인천 → 토론토 → 오타와
12. 9(월)	CRTC	○ 부담금 부과 당위성 논거, 부과대상 확대, 부과 기준 관련 향후 정책방향 논의 등
12.10(화)	CAB	○ 부담금 부과 당위성 및 부과대상,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인식 및 적정성 여부 ○ 시장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
12.11(수)	CBC	○ 부담금 부과 당위성 및 부과대상,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인식 및 적정성 여부 ○ 시장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○ 오타와 → 토론토
12.12(목)	CMF	○ 재원 조성 규모 및 방법, 기금 주요사업 내용 및 성과 관련 논의 등
	CTV	○ CAB, CBC 질의와 동일 ○ Tangible Benefits Policy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
12.13(금)	Bell Fund	○ 기관에 대한 기초사항 파악 ○ 시장 변화에 따른 부담금 관련 인식 및 의견 논의 등
12.14~15(토,일)		○ 토론토 → 인천

Ⅱ . 라디오TV 통신위원회(CRTC)

□ 일 시 : '19. 12. 9.(월)

□ 방문기관 : 라디오TV 통신위원회(CRTC)

□ 주 소 : 1 Prom. du Portage, Gatineau, Qc J8X 4B1 Canada

□ 면 담 자 : Scott Shortliffe

□ 목 적 : 분담금 부과 당위성 논거, 부과대상 확대, 부과 기준 관련
향후 정책방향 논의 등

□ 기관소개

- 캐나다의 정보통신(ICT), 방송규제기관으로 캐나다 라디오 TV통신 위원회법에 준하여 1976년에 설립됨
- 통신요금 심사, 전기통신 및 방송에 관한 규제 제정, 라이선스 부여, 분쟁처리 등 업무를 주관하며, 방송 서비스 라이선스 발급 및 갱신,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및 소유권 감독, 콘텐츠 감독 등을 담당함

□ 분담금 징수체계

- (부과근거) CRTC의 방송시스템 규제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**Part 1** 수수료와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시스템을 위해 납부하는 **Part 2** 수수료가 있음
- Part 1은 CRTC의 운영비 조달을 목적으로 운영비회수모델(fee recovery model)에 근거하며, 방송시스템 규제 관련 법무서비스 비용 등 운영비를 위해 방송·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서비스 비용임
- * CRTC의 운영비는 연방의회가 승인한 정부지출금도 있음

- Part 2는 캐나다 전역에 공식 언어(영어, 불어) 및 특정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지원한다는 방송법의 공공정책 논리에 근거하며, 방송사업자가 캐나다의 방송시스템을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임
- (부과기준) 캐나다는 순매출액이 아닌 **총방송매출액**을 기준
 - 유료방송·케이블방송·통신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들이 방송사업 비용을 최대화하여 인위적으로 방송분담금을 줄이는 것을 사전 차단 가능
- (감면기준) part 1의 하한선 기준과 및 Part 2의 상한선 기준이 있음
 - Part 1 하한선(면제) 기준은 소규모 지역 방송채널사업자가 대안 방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정책기조에 근거함
 - Part 2 상한선 기준 설정(약 1억달러)은 방송업계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임

□ Tangible Benefits policy 체계

- (개요) 기업을 매각 또는 인수하는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일환이며,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
 - 주로, 캐나다 지역의 뉴스 또는 전통 음악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함
- (면제기준) 방송사업자가 인수합병으로 인한 수익이 없다고 주장할시, CRTC의 내부 심사위원회는 면제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므로 예외할 수 있음

□ OTT사업자 분담금 부과 이슈

- (규제현황) CRTC는 디지털 미디어 면제 명령(Digital Media Exemption Order)에 의거한 인터넷 규제권을 갖고 있으나, OTT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권한을 위해서는 방송법의 재검토가 필요함

- 정부는 평가패널들로 하여금 방송 및 통신법을 검토 중이며 정부의 권고(안)이 담긴 평가패널보고서는 '20.1월 중 나올 것이라 예상
 - ※ 패널이 정부에 권고안을 내고 이에 기반하여 정부가 법 개정 여부를 결정
- CRTC의 OTT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권한 및 OTT사업자의 법정 분담금을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임
- (CRTC 입장)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액의 1%를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, 분담금의 형태가 기존의 면허수수료 개념이 아닌 방송시스템을 위한 재원을 거둬들이는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

□ 방문기관 사진



Ⅲ. 캐나다 방송사협회(CAB)

□ 일 시 : '19. 12. 10.(화)

□ 방문기관 : CAB(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) 캐나다 방송사협회

□ 주 소 : 160 Elgin Street, 19th Floor, ottawa

□ 면 담 자 : Lenore Gibson, Sylvie Bissonnette, Matt Thompson,

□ 목 적 : 분담금 부과 당위성 및 부과대상,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인식
및 적정성 여부 시장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및 변화
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

□ 기관소개

- 캐나다의 상업라디오, 텔레비전방송국, 네트워크, 채널(specialty), 유료
및 PPV(pay-per-view) 서비스를 비롯한 상업 방송사를 대표하는 협회
- 회원사는 총 600개에 이르며 450개 라디오 방송사, 150개 텔레비전
방송사로 구성됨
- CRTC, 캐나다 문화부, 캐나다 산업부, 광고와 관련하여 보건부,
저작권 등과 관계를 맺고 있음

□ 징수제도 관련 CAB 입장

- (징수제도) 상업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CAB 입장에서는 면허
수수료인 Part 1, Part 2 분담금 납부보다 CRTC의 분담금 규제
정책에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
- CRTC는 Part 1, Part 2 외에도 상업 TV방송사에게 총매출액의
30%를 캐나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,
- Part 1, Part 2와 같이 CRTC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CMF를

비롯한 각종 기금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, 상업방송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

- 방송사업자는 5년마다 면허권 갱신을 받고 있으며, 이때 CRTC에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분담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함
- **(OTT사업자 분담금 부과 관련)** OTT사업자도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함
 - 캐나다의 OTT 사업자들은 분담금 납부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며, 연방정부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
 - 정부가 해외 OTT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분담금 징수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며, 이는 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캐나다 방송콘텐츠가 계속 제작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 요소임
 - 프랑스의 OTT사업자 대응 사례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
- **(Tangible Benefits Policy 관련)** 캐나다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, 방송사의 대규모 인수합병에서 인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음
 - TV의 경우 거래금액의 10%를, 라디오는 거래금액의 7%를 CMF 등과 같은 펀드에 납부하고 있음

□ 방문기관 사진



IV. 캐나다 공영방송사(CBC)

□ 일 시 : '19. 12. 11.(수)

□ 방문기관 : 캐나다 공영방송사(CBC)

□ 주 소 : 181 Queen St. ON K1P 1K9 Canada

□ 면 담 자 : Shaun Poulter

□ 목 적 : 분담금 부과 당위성 및 부과대상,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인식
및 적정성 여부 시장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및 변화
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

□ 기관소개

- CRBC(캐나다 라디오 방송위원회)가 1936년 방송법에 의해 캐나다 공영방송사 CBC로 재편되었으며 캐나다 의회를 통해 매년 운영비를 조달받음
 - 기본적으로 무광고를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유료서비스 등을 제공
- 라디오는 3개의 영어 채널과 2개의 프랑스어 채널, 1개의 국제라디오서비스채널(Radio Canada International)을 운영
- TV는 종합편성 채널과 뉴스 채널을 각각 영어·프랑스어 채널로 운영

□ 운영현황

- (재무구조) 여러 가지 재원을 갖고 있음. ①의회가 지원하는 예산, ②deferred capital funding과 working capital funding에 따른 배당금, ③방송광고수익, ④가입자 수수료 수입 등이 있음

- 가입자 수수료 수입의 경우 뉴스 채널, special resources가 있음
- CBC에 대한 공적 지원 예산규모는 2016년 기준 1인당 29달러에 불과하며 OECD 18개국 중 캐나다는 16위에 그치고 있음. 따라서 CBC는 재원조달 구조보다는 공적자금의 지원액을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임
- **(방송시장 동향)** 방송광고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미디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. 캐나다의 경우 구글, 페이스북이 디지털 매출액의 75%를 차지하고 있음. 따라서 디지털미디어가 캐나다 미디어사업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음

□ OTT 사업자 관련

- **(캐나다 OTT 사업자 현황)** 넷플릭스와 캐나다 OTT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. 캐나다 영어권 지역의 넷플릭스의 가구 침투율은 61%이며 캐나다의 전체 OTT서비스 침투율이 71%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시청자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음
- 캐나다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진출한 국가이며 넷플릭스는 캐나다 시청자의 넷플릭스 이용행태 자료를 오랫동안 축적하고 있음
- 시청률 상위 100개의 쇼 중 캐나다에서 제작된 쇼는 23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쇼는 미국의 쇼임. 프라임타임 시간대에서도 넷플릭스가 시청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, CTV가 2위이지만 넷플릭스 시청률이 45%나 앞서고 있음
- **(분담금 납부)** CBC는 OTT사업자가 캐나다 방송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
- CBC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OTT사업자가 캐나다에서 얻은 수익은 캐나다 시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. 또한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의 경우 캐나다에서 수익을 창출하고

있으므로 그 수익은 캐나다 방송시스템에 기여해야 함

- 이를 위해 ① OTT사업자가 국내 법체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OTT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담금을 납부토록 해야 하는지 강력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함
- (해외OTT사업자의 부과기준) 글로벌 OTT 사업자가 면허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,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중
-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2019년 4월 OTT사업자에게 법인세 3%를 부과하였으나 캐나다 방송시스템이 아닌 정부 재원에 포함되었음
- 프랑스의 경우, 해외 OTT사업자가 프랑스에서 얻는 매출액의 3%를 문화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례를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CBC도 적극 지지하고 있음

□ Tangible Benefits Policy 관련

- (Tangible Benefits Policy 관련)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일어날 경우 그 일부를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며 CBC의 재원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,
- Tangible Benefits Policy를 통해 발생하는 분담금이 CMF 등의 펀드로 분배가 되고, CMF는 이를 기반으로 독립제작사, 독립프로듀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
- CBC는 독립제작사, 독립프로듀서와 긴밀한 협력을 맺으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Tangible Benefits Policy가 CBC에게 간접적 지원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음

□ 방문기관 사진



V. 캐나다 미디어펀드(CMF)

□ 일 시 : '19. 12. 12.(목)

□ 방문기관 : CMF(Canadian Media Fund) 캐나다 미디어펀드

□ 주 소 : 50 Wellington St. East Suite 202, Toronto

□ 면 담 자 : Valerie Creighton, Sandra Collins

□ 목 적 : 재원 조성 규모 및 방법, 기금 주요사업 내용 및 성과 관련 논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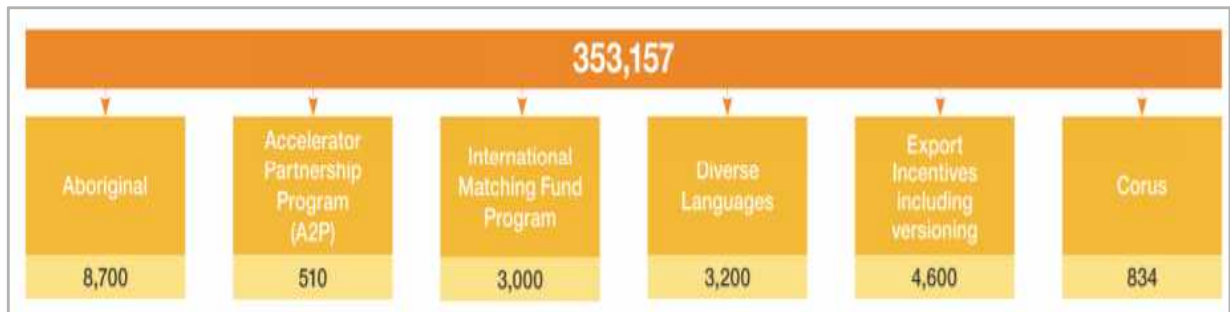
□ 기관소개

- 캐나다 정부 및 캐나다 방송사업자에게 재정 조달을 받으며, 캐나다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육성, 진흥, 개발, 재정지원을 수행함
- CMF의 관리감독 권한이 CRTC에서 문화부로 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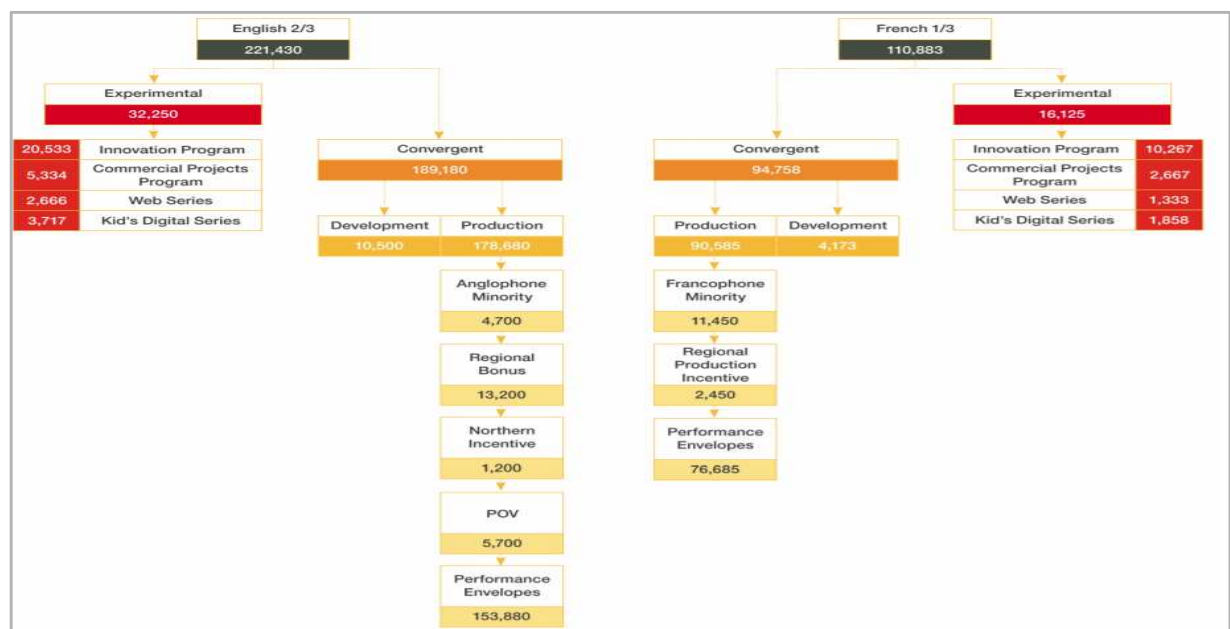
□ 운영현황

- (재원구조) 주요재원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
 - 방송사 총매출액 5%를 CMF에 납부하도록 CRTC가 규제하고 있음
- (재원규모) 문화부 지원금 및 BDUs* 분담금 등 연간 351백만 달러임
 - ※ BDUs는 케이블, 위성, IPTV를 포함한 방송사업자
 - 위성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위성방송 시청자 감소로 재원이 감소함
 - 캐나다 정부가 안정화기금(Stablization Fund)를 운용을 통해 부족분 해소
 - 현재 패널은 방송 및 통신 법제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며, 인터넷 서비스회사가 분담금을 납부 방안 마련을 기대

- (지원사업) 2019-2020년 지원사업 예산은 3억 5,315만 달러 규모임
- 프로그램 기준 지원사업 예산규모 (단위: 천달러)



- 언어 기준 지원사업 규모 (단위: 천달러)



□ 징수제도 관련 CMF 입장

- (분담금 관련) 방송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인해 CMF에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
- CMF는 분기별1회(연4회) 방송사업자와 분담금 재원의 사용내용을 설명
- 방송사업자는 방송면허권 갱신을 위해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함
- (해외OTT사업자 관련) 해외OTT사업자는 캐나다에 법인세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 불공평한 상황이나, 분담금 부과 시 미국과 외교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

- 이에 따라, 캐나다 정부는 해외OTT사업자가 캐나다 방송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패널을 통해 검토 중이며, 그 방안은 ① 세금 ②쿼터제 ③Prominent display로 고려하고 있음
- **(Tangible Benefits Policy 관련)** TV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시 인수회사가 거래금액의 10%를 분담금으로 납부토록 함
 - 이 중, 최소 48%이상이 CMF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음
 - 과거 인수회사가 CRTC에 분담금 10%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, CRTC는 인수회사가 계획대로 수행하지 않자 분담금 10%를 7년간 납부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음

□ 방문기관 사진



VI. 캐나다 민영방송(CTV)

- 일 시 : '19. 12. 12.(목)
- 방문기관 : CTV(Canadian Television) 캐나다 민영방송
- 주 소 : 299 Queen St W, Toronto
- 면 담 자 : Susan Makela, Alain Strari
- 목 적 : 분담금 부과 당위성 및 부과대상,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인식 및 적정성 여부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
- 기관 소개
 - 캐나다 최대 상업방송사 Bell Media의 사업부로, '10.9월 BCE(Bell Canada Enterprises)가 CTV를 인수하였음
 - CTV는 지상파 TV채널 2개 ,PP채널 30개, 라디오채널 33개를 보유함
- 징수제도 관련 CTV 입장
 - (징수 배경) 캐나다는 미국과 동일 시간대인 접경국가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위해 현재의 분담금 징수 체계가 형성됨
 - (징수제도 관련) CRTC는 Bell Media가 총 매출액의 최소 30%를 캐나다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사용하도록 요구함
 - 캐나다는 미국과 동일한 언어와 시간대를 갖고 있어 미국 방송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며, 분담금을 통해 캐나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비율을 높여야 함
 - 캐나다 내 영어권 시장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상위 30% 가량은 미국 프로그램이며, 반면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 지역은 다른 양상을

보이므로 언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

- Part 1은 통신사업자,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면허세로 '18년 약 31백만달러 징수하며, CRTC의 역할로 보면 규제비용 조달을 위해 부과하는 면허세는 적은 부분임
- Part 2는 상한선이 약 1억 달러 정도의 면허세로 CRTC가 징수하여 CMF에 지원하며, 방송프로그램 제작 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제함
- (OTT사업자 분담금 부과 관련) 해외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납부 의무 부여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며, 특히 접경지역인 미국과 외교 마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
- 과거 CRTC가 미국 방송사(ANE, TRC, CNN)의 캐나다 서비스 제공시 캐나다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제작비의 30%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며,
- 특히 OTT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정책을 적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음
- 시청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오래된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지지철회 등 정치적 문제 발생
- (Tangible Benefits Policy 관련) 방송사가 인수합병시 캐나다 방송 시장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함

□ 방문기관 사진



VII. 독립프로덕션 펀드(Bell Fund)

□ 일 시 : '19. 12. 13.(금)

□ 방문기관 : Bell Fund 독립프로덕션 펀드

□ 주 소 : 2 Carlton St #1709, Totonto

□ 면 담 자 : Nancy Chappelle

□ 목 적 : 기관의 기초사항 파악 및 분담금 관련 인식 및 의견 논의

□ 기관소개

- 벨 펀드는 비영리 기관으로 CRTC의 규제를 받으며, BDUs의 분담금 일부를 지원 받아 운영함
 -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간 연결 기능 수행

□ 운영현황

- (재원구조) BDUs 분담금의 20%가 벨펀드 및 소규모 펀드들에게 배분되고 있으며, 연간 규모는 2,500만 캐나다 달러임
 - 과거 BDUs 매출 감소로 재원이 감소하였지만 방송서비스 외 결합 상품을 통해 수익창출로 '20년 재원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
- (지원사업) 벨 펀드 지원금의 50%는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, 나머지 50%는 방송발전이나 디지털 플랫폼 개발 등에 사용함
 - 캐나다 방송사업자 및 소규모 단편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,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SVOD(Subscription VOD) 서비스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캐나다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함

□ 징수제도 관련

- (징수 배경) 캐나다 방송시장은 외국 방송사업자의 진입을 통제하여 자국의 방송산업을 보호하고자 방송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규제함
- (OTT사업자 분담금 부과 관련) 벨펀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야하는 입장이며, 현재 자국의 방송사업자와 해외OTT사업자 간 법정분담금 납부 의무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
 - 판매세금(sales tax)을 해외OTT서비스에 부과하여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
 - ※ 캐나다 OTT서비스인 Crave는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를 구독할 시 판매세금이 포함된 이용료를 납부함
 - 퀘벡을 비롯한 지역정부는 이미 넷플릭스에 판매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이런 사례가 연방정부차원의 판매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음
 - 해외OTT사업자에 판매세금을 부과할 경우, 연방 정부의 세수로 유입하여 캐나다 방송 산업에 선순환구조를 도모할거라 기대함
 - CRTC는 연방정부에 캐나다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OTT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(independent agreement)을 도출해 내도록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함
 - 연방정부는 외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 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'20. 1월 패널의 의견수렴 결과 및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임
 - 현재 방송사업자 분담금이 CMF 및 독립프로덕션펀드로 분산되어 운영되나 향후 수퍼 펀드 하나로 통합될 전망
 - 해외 OTT사업자의 분담금은 ① 캐나다 콘텐츠 제작 및 보호 방식의 규제 ② 규제 최소화를 통한 우호적인 시장 형성으로 논의 중임

□ 방문사진



VIII. 시사점 및 특이사항

□ 시사점

- (분담금) 캐나다는 분담금재원으로 규제기관의 운영비, 캐나다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방송 산업의 진흥 및 자국의 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활용함
 - 이를 통해,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받음
 - 정부는 공공정책에 기여하며, 정부와 방송사간 상생환경을 조성함
- (부과대상 확대) 방송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해외 OTT사업자를 조세 및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여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
 - 향후 국내에서 OTT사업자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 할 경우 '20. 1월 발표 예정인 캐나다의 평가패널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
□ 특이사항 : 없음